



향

향기로 정신맑게 삼독은 연기처럼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향...’ 절에서는 아침저녁 예불 때마다 오분향(五分香)을 외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계로써 만든 향, 선정으로 만든 향, 지혜로 만든 향, 해탈의 향, 해탈지경을 베푸는 향을 완전히 태워서 범신불의 세계(진리 그 자체의 몸)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향은 초와 꽃, 정정수와 더불어 부처님 전에 바치는 6가지 기본 공양물 중의 하나다. 향을 사르는 것은 부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 찬탄하는 동시에 여러 개의 향이 타더라도 그 연기는 하나로 응축 합해지듯이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화합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부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향은 보통 고체상태로 태우는 향(線香)과 가루향, 향환(香丸) 등이 있으며 벌어서 간드라(gandha) 또는 인센스(incense)라고 한다. 인센스는 라틴어 ‘incensum’에서 온 것으로,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하여 태울 때 향내를 풍기는 것을 말한다.

문고·가야금을 탈 때,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 시간을 잘 때 등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했다.

그러나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들었던 향 문화는 조선조 후기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지위를 감추기 시작, 오늘날에는 헌향의식과 육법공양의식에서만 남아있다.

우리향 또한 값싼 수입향에 밀려 쇠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향시장의 70~80%를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외국산 향이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는 싸구려 인조향이 천연 고급향으로 둔갑해 우리 향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향 연구가 송인갑씨는 “천연재료로 만든 우리 향이 오장육부의 경락을 풀어 정신을 맑게 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데 반해 화학성분이 든 외국산 향은 장시간 맡을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열이 오르게 하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자들이 피워대는 수입향 때문에 법당의 부처님도 연기중독을 일으키실지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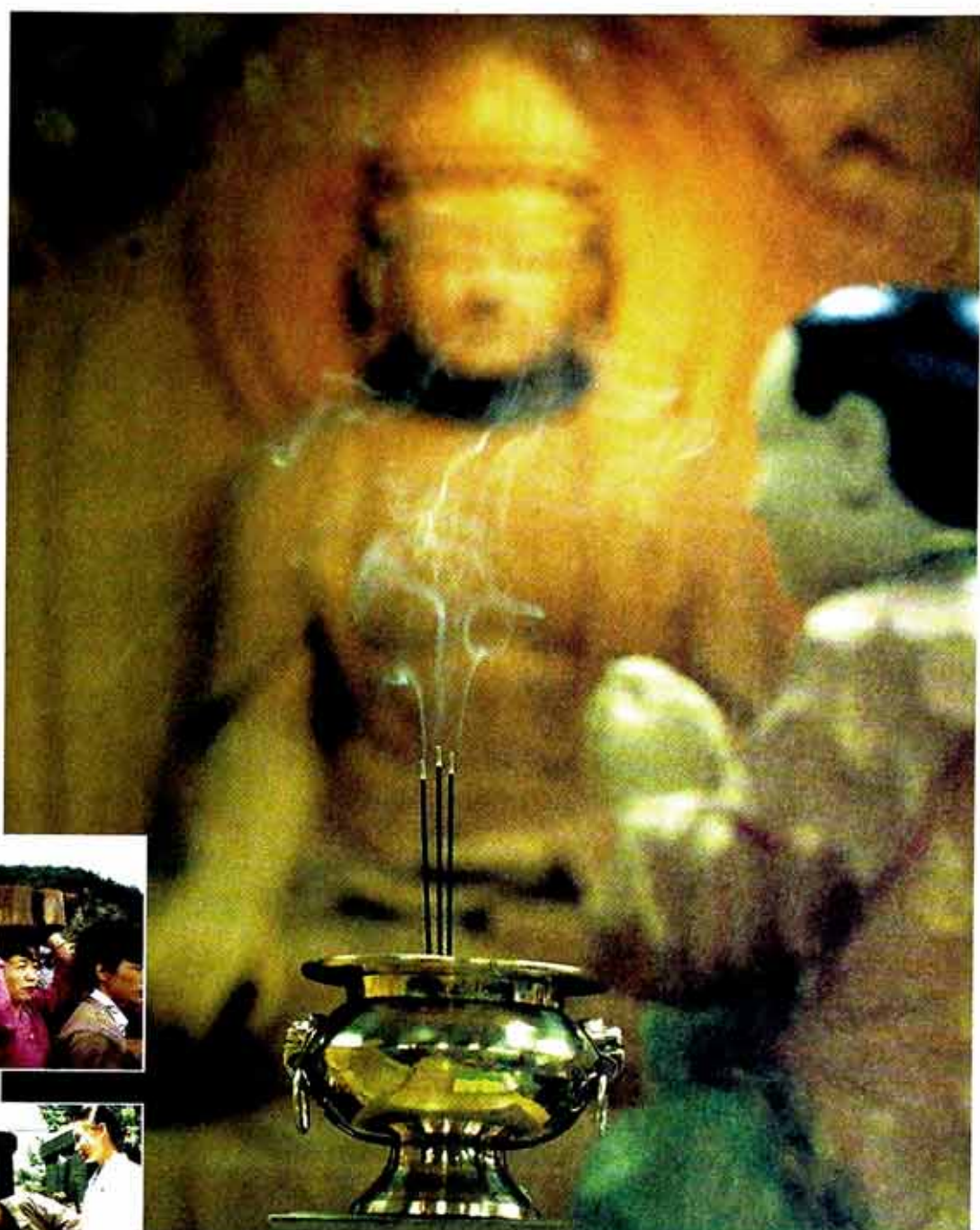
‘향기를 찾는 사람들(대표 박희준)’은 이같은 수입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향을 연구·보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95년 농협스님, 박희준씨, 조백식 등 몇 안되는 불자들이 결성해 지금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2백여 명에 달하는 전국 향인들이 모여 ‘우리향 피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향기를 찾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좋은 향 선별 방법, 좋은 향은 연기가 가늘고 길게 한 줄기로 깨끗하게 올라가면서 힘이 있는 것이고, 파울 때 푸른 빛의 연기가 나고 햇빛이나 검은색을 바탕에 비추었을 때 흰색이 많거나 담배연기처럼 누르스름하면 인조 화학 향이다.

향의 천연재료에는 향나무·단향과의 상록교목인 백단(白檀)·팔꽃나무과의 상록교목인 침향(沉香)·한방에서 정향나무의 껍질우리를 재취해 약재로 쓰는 정향(丁香) 등의 수목(樹木)과 감람과의 상록교목인 유향(乳香)·파죽나무과의 낙엽교목인 안식향(安息香) 등의 수지(樹脂·나무에서 나오는 진), 수컷 사향노루의 하복부에 있는 향낭을 쪼개어 달린 가루인 사향(麝香)·향유고래에서 채취한 송진같은 향료인 용연향(龍涎香) 등 동물에서 얻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는 야생화, 녹차 등을 이용한 향도 나오고 있다.

모든 향내에 바람이 불면 쉽게 흩어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물에 배어든다. 그래서 법당은 중 증생들이 부처님을 담아가고 끝내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발원의 공간이 된다.

글=도플선 기자(psdo@buddhania.com)
 사진=고명배 기자(ybgo@buddhania.com)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싶던 기운을 정화하는 향. 그렇기에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인기다. 향에는 끝내는 부처를 이루고 싶겠다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있다.
 ▲지난해 10월 김제 금산사에서 6백년만에 ‘패향’ 의식이 재현됐다(사진 위). 95년 결성된 ‘향기를 찾는 사람들’은 서울 인사동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우리향 피우기 운동’을 전개, 천연 전통향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부처님 공양물중 하나 수입향 불단점령 위기 '우리향 피우기운동' 전개

우리나라의 향문화는 불교가 전래되면서 비롯됐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향은 450년 눌지왕에게 보내온 양나라의 향물을 보고 목욕자(신라에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승려)가 ‘향’이라고 부르면서 알려졌다. 향은 불교의 각종 의식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불가에서는 중요한 법회나 직방의식, 육법공양의식을 비롯 매향의식, 출향의식 등의 형태로 사용됐다. 불상의 복장물과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육법의식 때도 향은 빠지지 않는다.

8세기 중엽의 《역지목서화엄경》에 따르면 사경에 쓰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 밑에 향수를 뿌리고, 사경법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향을 사르고 뿌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향이 불교의식에 필수적으로 사용됐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고려시대에는 향도(香徒)라는 불교신앙결사가 맺어져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며 신성한 곳을 찾아 향을 묻는 매향(埋香)의식이 행해지기도 했다. 신성한 땅에 향을 묻어 용화세계 구원을 염원했던 것이다. 매향은 미래세를 닦는데만 그치지 않고 현재의 청정과 복락을 함께 기원하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그 뿐이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여인들이 은은한 향내로 치장할 때, 경전을 읽을 때, 서예를 할 때, 차를 마시며 정담을 나눌 때, 거

평한다. 종작 이상의 차 잎으로 만든 향완은 녹차와 꿀만을 배합해 제조한 것으로, 순수한 녹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향완은 목욕할 때 물에 녹여 써도 좋은 만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

‘구례소리’ 개발 제안자 정연권(농업기술센터 기술계장)씨는 “한반도에는 향의 추후가 가능한 토종 식물이 산재해 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과 투자를 게을리해 그 가치를 살리지 못했다”며 “서양의 향이 밤새를 앞세워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의 향은 내적 정신을 중시하고 기쁨을 다스리는 데 효능이 있어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례소리’는 현재 구례군 내에서만 살 수 있지만 오는 11월경에는 전국 백화점 및 도소매 향 판매시장, 사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플선 기자

야생화 전통향 나왔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10월이면 황색꽃이 피는 감국과 녹차로 만든 향이 나왔다. 향에 불을 붙이는 순간 짙은 들국화 향기가 법당 안을 채우고, 입안 가득 맴돌던 녹차의 씹새를 한껏 향기로 코끝에 와 닿는 국내 유일의 천연 향이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1일 지난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선향(線香-줄이나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막대모양의 향) ‘모닝’과 ‘나이트’, 향환(香丸-향으로 빚어놓은 향) 등 ‘구례소리(Kurye SORI)’ 3종을 관광상품으로 선보였다. 향 이름 ‘구



○구례군이 야생화와 녹차를 원료로 개발한 천연향 ‘구례소리’
 ‘구례소리’는 구례군과 문향(聞香)의 의미에서 따왔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감국을 원료로 한 선향인 ‘모닝’을 아침 이슬처럼 맑고 부드러운 향으로, ‘나이트’는 저녁 노을처럼 깊고 오묘한 기쁨이 나는 향이라고 설명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이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감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황의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제법사비)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백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설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정양심씨)
 · 뇌막염이 전기로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마우뽕 (집21개 순금도금)
₩ 80,000

· 전화해 주시면 화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타로그 화촉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간, 장, 보만) 책자우송

수정피리드 ₩55,000	수정정리만아름 ₩30,000	은허니아름 ₩45,000	은허니아름 ₩55,000	자수동 목각작업 ₩75,000
꽃 ₩55,000	꽃 ₩35,000	부르타이 ₩55,000	백달이 허니 ₩45,000	달 허니아름 ₩45,000
허니아름 ₩35,000	수정목각물 목달이 ₩77,000	허니아름 ₩12,000	수정달 ₩35,000	꽃 지압발 ₩18,000
꽃목각 ₩10,000	수정목각 ₩72,000	연수 ₩96,000	자수 ₩195,000	꽃 ₩12,000

*** 萬事亨通 달마도**

모닝
 정가 ₩ 20,000

나이트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萬事亨通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萬 · 萬 · 萬 건강이 좋아집니다.